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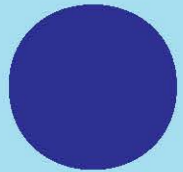
O₅Rchestra

(오케스트라)





O₅Rchestra



ORCHEM

O! Quiz 이벤트!

사보 마지막 페이지 O! Quiz를 풀어보세요!

임직원 7명에게는 소정의 상품권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응모방법 : 김정아 사원 메일(junga9434@orchem.com)로 응모

※ 본 이벤트는 랜덤추첨으로 진행됩니다.

CONTENTS

04 O! Highlight

06 O! News

12 Inside ORChemer

18 슬기로운 직장생활

19 2024 1Q 타운홀 미팅

20 산업/기술 동향

22 CA 2기

23 O! Campaign

26 O! Language

28 O! Research

30 O! Health

32 O! Culture

36 O! Test

37 O! Quiz

발행처 (주)오알켄

발행일 2024년 7월 1일(통권 제 13호)

편집/디자인 김정아

기자단 ORCHEM (본사) 최다정, 김학범
ORCHEM (중국법인) 莫秋玉 Mo qiu yu
ORCHEM (베트남법인) Jang
오알시솔루션 박승영, 김준용

대표전화 031-488-0600

홈페이지 www.orchem.com

2024년 2분기 ORCHEM 주요 활동 돌아보기



04월 ORCHEM,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기업 선정
이재현 대표, 한국에서 존경받는 CEO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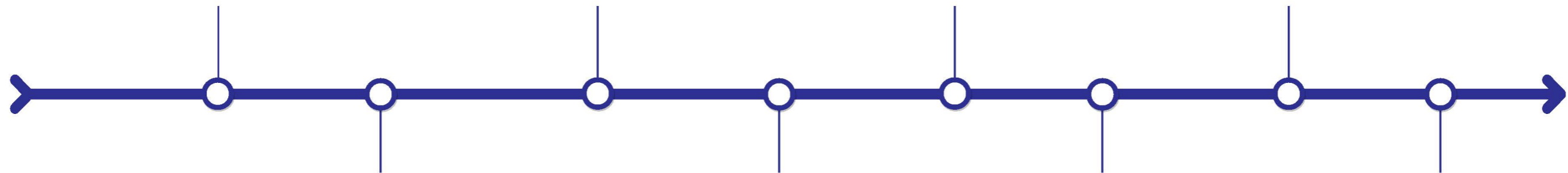
04월 구미&ORC 솔루션 심폐소생술 교육



05월 산업 안전 교육 & 정밀화학용기 기술 세미나



05월 글로벌 강소기업 1000+ 선정



04월 2024 1분기 타운홀 미팅



04월 밀폐 공간 훈련 교육



05월 사내 이벤트 '마니또'



06월 ERP PI팀 4주간 중국법인 ERP 셋업



! Highlight
2024년
2분기

●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
한국에서 존경받는 CEO 선정



오알켄 제22회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 선정

오알켄이 '제22회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에 선정되었습니다. 해당 인증은 GPTW가 주관하며 ▲믿음 ▲존중 ▲공정성 ▲자부심 ▲동료애 등으로 구성된 평가 요소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기업에 수여됩니다. 또한 오알켄 이재현 대표님이 선한 리더십과 높은 사명감으로 일하기 좋은 일터를 만들고 큰 성과를 창출해 산업 발전에 기여한 최고 경영자(CEO)를 뽑는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CEO'에 선정되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사업추진 역량 ▲윤리경영 ▲지원 ▲참여 ▲보살핌 ▲공평성 ▲정당성 등의 평가 항목에서 오알켄 직원들의 신뢰와 인정을 받아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CEO 59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 구미 공장&ORC 솔루션 응급처치 교육



구미 공장 & ORC 솔루션, 응급처치 교육

구미 공장과 ORC 솔루션이 4월 16일 대구시민안전파크에서 응급처치 교육을 받았습니다. 소중한 생명을 위한 작은 노력이 아름답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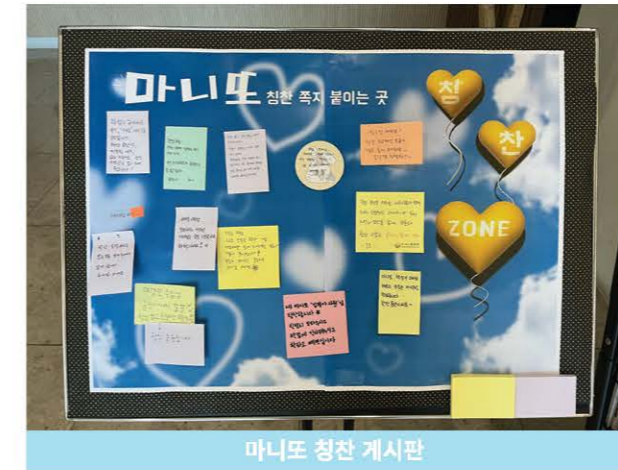
● 2024 1Q 타운홀 미팅



2024 1분기 타운홀 미팅

2024년도 1분기 타운홀 미팅이 4월 23일 오알켄 4층 강당에서 열렸습니다. 1분기 경영 현황과 '컨미팅' '독서토론회' 등 오알켄 최근 소식들에 대한 소개가 있었고요, 약 11명의 신규 입사자 소개도 이어졌습니다. 오알켄 핵심 인재상은 재무회계팀 임수정 대리님(대내), 품질팀 조선영 부장님(핵심가치-협업), 전산정보팀 황소영 사원님(핵심가치-협업)에게 돌아갔습니다. 신규 입사자분들 및 수상하신 모든 분들 축하드립니다!

● 사내 이벤트 '마니또'



마니또 칭찬 게시판

신규 입사자의 부서 적응과 사내 화목한 분위기 형성을 위한 이벤트 '마니또'가 진행되었습니다. 5월 20일부터 6월 21일까지 약 한 달간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미션을 수행하며 상대방에게 소소한 즐거움과 도움을 주는 게임이었는데요, 곳곳에 전달된 뜻밖의 감사 표시가 오알켄을 한층 더 훈훈하게 만든 이벤트였습니다.

● 오알켄 글로벌 강소기업 1000+ 선정



글로벌 강소기업 1000+ 기업 지정서

오알켄이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글로벌 강소기업 1000+에 선정되었습니다.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는 혁신성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수출 중소기업을 발굴해 수출 선도기업으로 육성하는 제도로 2,080개 사 중 473개 사가 선정되었습니다. 시상식 및 간담회에는 오알켄 이충호 대표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 2024년 1차 PCB 자격증 초급과정(GL) 16명 합격

- 다 음 -

가. 합격자 명단

No	업체	성명	직급	부서
1				
2				
3	오알켄	김관현	사원	선행개발팀
4	오알켄	김기훈	주임	중앙연구소
5	오알켄	김대균	주임	선행개발팀
6	오알켄	김성병	사원	선행개발팀
7	오알켄	김시연	사원	연구기획
8	오알켄	김주완	과장	PI
9	오알켄	김혜정	사원	선행개발팀
10	오알켄	남민정	사원	제품개발
11	오알켄	박민지	주임	선행개발팀
12	오알켄	박연수	사원	연구기획
13	오알켄	오동환	주임	중앙연구소
14	오알켄	원종호	주임	제조팀
15	오알켄	이훈희	사원	기술혁신팀
16	오알켄	임창현	사원	기술혁신팀
17	오알켄	정준	사원	기술혁신팀
18	오알켄	최수진	사원	선행개발팀
19				

2024년 1차 PCB 자격증 초급과정 합격자 명단

2024년 1차 PCB 자격증 초급 과정(GL)에 오알켄 직원 16명이 합격하였습니다. 오알켄인의 끊임없는 도전과 성장을 응원합니다!

ORC SOLUTION 워크숍

안녕하십니까, 2024년에 벌써 반이 지나갔네요. 최근 쉬는 날도 많았다 보니 유난히 빨리 지나간 듯합니다. ORC솔루션은 4월19일(금)~20일(토) 1박 2일 동안 협동과 협력 그리고 단합을 위해서 '첫 워크샵'을 다녀왔습니다. 예전부터 워크샵 얘기가 종종 나오긴 했었는데, 각자 일과 개인 사정 때문에 미루다가 이번에 날짜를 맞춰서 다녀왔습니다. 워크샵 장소는 순천과 여수였는데요, 여수에 도착을 해서는 먹거리랑 근것질, 그리고 관광도 하면서 돌아다녔는데 날씨가 다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목적지인 순천만습지로 넘어가 구경했는데, 새로 돌아난 갈대와 기존에 있던 갈대색이 차이가 나서 좀 아쉬웠어요. 그래도 뭔가 모르게 운치도 있고, 걸으면서 서로 못했던 대화도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걸으면서 생각하기에도 좋았습니다. 저녁엔 예약한 식당에 가서 마저 못다 한 얘기도 했구요. 한정식 식당이라 반찬 종류도 많았고, 맛도 나무랄 것 없이 정말 맛있었습니다. 식사 후엔 숙소로 돌아와 서로 서운했던 얘기, 보완했으면 하는 것,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효율적인 업무 진행을 위한 서로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협력 도모 등에 대하여 토의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엔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스페이스 브릿지, 호수공원, 세계 정원, 식물원 등을 방문했는데, 비가 와서 보는데, 조금 불편하긴 했지만, 그래도 나름 오랜만에 가봤던 곳이라 재미나게 보고 온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이후 점심을 먹고 카페에서 비 구경도 하면서 약간의 대화를 나눈 뒤, 구미로 떠났습니다. 이번 워크샵을 통해 조금 더 서로에 대해 알아 간 것 같고, 조금 더 나은 회사 생활을 위해 도움이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절감성 공장 ERP 구축 현황



+ 2024년 + 7월 1일 + ORCHEM + 중국법인+ NEWS +

ERP 추진 배경 및 목표

절감성 공장이 완공을 앞두고 ERP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사가 최근 도입한 ERP 시스템을 절감성 공장에도 도입하여 본사와 해외 법인 간의 데이터 정확성 및 통일성을 높이고, 회사의 전반적인 데이터 관리 및 업무 효율을 향상할 계획입니다.

ERP 구축 준비 및 요구사항 분석

앞서 본사는 상세한 사업 계획 및 일정을 수립, TFT를 구성하여 각 구성원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중국 PI는 3월 24일 한국 본사에 도착, 약 2주간 한국 PI와의 협력을 통해 본사의 기존 ERP 업무 프로세스 분석 및 이해, 관련 업무 요구 사항 수집, 중국 법인 적용을 위한 문제점 파악 및 협의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ERP 구축을 위한 과정들이 번거롭고 또 스트레스를 유발하기도 했지만,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태도와 도움으로 잘 극복해 낼 수 있었고 또 ERP 시스템 구축 및 구현을 위한 좋은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ERP TFT 한국 PI

혁신본부 김주완 과장, 제조팀 명경남 과장, 구매팀 김홍덕 부장, 재무회계팀 임수정 대리, 전산정보팀 박정수 차장, 영업관리 이정은 과장

중국 PI

品质-姬素军, 生产-汪峰, 采购-全伟平, 财务-叶秀梅/金筱官, 营业管理-莫秋玉/俞敏倩 以及ERP系统开发团队。

ERP 구축 진행 상황

- 1) 원활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 4월 ERP TFT 및 한국 PI 절감성 공장 방문
- 2) 매주 프로세스 차이점 분석 및 토론, 작업 진행 상황 검토 및 새롭게 발견된 문제점 요약 진행
- 3) ERP에 필요한 모든 데이터 수집 및 정리, 대조 및 요약, 검토 반복 진행
- 4) 관련 부서 담당자에게 최종 검토 요청, 요구 사항의 정확성과 완성도 확보



*ERP TFT는 ERP 인프라 설계(본사 시스템과 일치 작업) 후 데이터베이스 설계 입력 등 중국 PI의 작업에 대해 개발 요구 사항을 늘리고 적극적으로 설계 및 연구 개발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문 당시 한국, 중국 PI가 함께 시스템 구축 부분에 대한 기능 및 프로세스 테스트를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들은 추후 지속적으로 보완될 예정입니다.

*중국 PI가 사용하기 쉽도록 ERP 시스템 모든 섹션에 대한 중국어 번역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현재 ERP 시스템은 초기 설정이 완료되었으며, 각 부서(구매, 품질, 생산, 운영 관리, 재무)의 관련 기준 정보가 ERP 시스템에 입력된 상태입니다. 중국 PI는 5월 6일~5월 19일 시스템 내 관련 작업 프로세스 숙지 및 숙련 등을 통해 시스템의 정확성과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매주 보고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할 것입니다.

차후 계획

6월 초 한국 PI가 절감성 공장을 방문해 중국 PI와 다시 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최적화 및 개선하며, 심천 공장의 사례와 절감성 공장의 데이터를 추가 테스트에 사용해 ERP 구축을 예정된 시간 내 성공적으로 완료할 것입니다. ERP 시스템 구축 진행 상황은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프로젝트팀은 프로젝트의 원활한 진행과 높은 완성도를 위해 정해진 계획과 목표를 따를 것이며, ORCHEM 데이터의 전략적 구축을 위해 견고한 토대를 마련할 것입니다.

● 오알켄 베트남법인

NEW
ORCHEM VINA **복지**

(오알켄 베트남법인 jang 기자)

ORCHEM VINA는 항상 임직원분들의 헌신에 감사하며, 임직원분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도입된 ORCHEM VINA의 복지들을 소개합니다!

+++



+ 휴식 공간 마련

직원 여러분이 하루 중 필요한 휴식을 충분히 취할 수 있도록, 편안한 낮잠 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공간은 남성과 여성으로 분리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조용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짧은 시간 동안 최대한의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식당 및 주방 확장

더 나은 식사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식당과 주방 공간을 확장하고, 음식 냄새 감소 및 쾌적한 식사 환경을 위해 식사 자리와 주방을 분리 하였습니다.



+ 휴게실 개선

직원들의 편안한 휴식과 교류를 위해 좌석과 테이블을 보강하였으며, 냉장고에는 다양한 간식들을 추가하여 직원들이 언제든지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 복지 공간 확대

직원들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위해 회사 주변에 다양한 나무를 심었습니다. 잣푸르트, 망고, 바나나, 파파야, 아보카도 등 다양한 과일나무를 재배하여, 공기 정화 및 자연에서의 휴식을 도모 하였습니다. 이러한 시설은 직원들의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고 업무 효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직원들의 지속적인 피드백을 기다리며, 앞으로도 임직원의 건강과 복지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ORCHEM 선행개발팀을 소개합니다

(사내 기자단 최다정 사원)

성희철 과장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선행개발팀 팀장 성희철 과장입니다. 분석기술팀에서 근무하다가 선행개발팀이 신설되면서 팀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따라주는 팀원들과 함께 새로운 업무에 도전하며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Q. 신생팀을 꾸려 나가는 데 어려운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팀원들이 각자의 역할을 잘 해주고 있어서 아직까진 업무적으로 큰 어려움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신생팀으로서 회사에 도움이 되고자 하다 보니 이러한 생각들이 부담감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끌어 주시는 선배님들과 도와주는 팀원분들 덕분에 힘내고 있습니다.

Q. 선행개발팀만의 장점이 있는지 궁금해요!

저희 팀의 장점은 도전적인 업무 방식인 것 같습니다. 새로운 것을 많이 배우기도 하고, 도전도 하면서 역량을 성장할 수 있어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도전적이고 꾸준한 일을 하고 싶은 분들에게 알맞은 업무인 것 같습니다!

Q. 선행개발팀에 많은 신입 사원이 들어왔어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새로운 사고방식, 도전이 필요한 업무라고 생각하는데, 기존 팀원들과는 다른 시각을 가진 친구들이 있어서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고, 또 활기찬 친구들 덕분에 팀의 분위기가 더 밝고 편안해진 것 같습니다.

Q. 지난 사보 10호에서 소개한 도마뱀은 잘 크고 있나요?

소개할 당시에는 어린아이였는데 훌쩍 커서 현재는 어른 도마뱀이 되었습니다. 살도 열심히 찌워서 몸집도 꽤 커졌어요. 15cm입니다. 요즘은 보이는 손가락은 다 물려고 달려드는 버릇도 생겼습니다.

Q. 선행개발팀 목표는 무엇인가요?

저희는 현재 가지고 있는 기술보다는 시장에 없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노력하여 경쟁사보다 한 단계 성장한 기술을 만들어내 PCB 산업계에 새로운 표준을 만드는 게 저희 팀의 목표입니다.

Q. 앞으로 어떤 팀장이 되고 싶은가요?

팀원들이 고민이나 의견들을 편안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팀장이 되고 싶어요. 업무적인 고충들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가며, 사적인 고민은 해결보다는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런 친근한 리더가 되고 싶습니다.

김대균 주임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선행개발팀 김대균 주임입니다. 전기동 신규 첨가제 개발 및 적용 평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Q. 최근에 베트남법인 출장 다녀오셨는데 어떠셨나요?

5년 동안 근속하면서 처음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걱정했던 것에 비해서 음식이나 생활 방식 등이 체질에 맞아 잘 지내다 왔어요. R&D 센터에 열정적인 친구들이 많아 테스트 교육하면서 뿌듯했습니다. 의사소통의 오류가 있기도 했지만 원활하게 테스트 진행을 마무리할 수 있어서 좋은 경험이 된 것 같습니다.

Q. 2024년도 목표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현재 개발하고 있는 신규 전기동 첨가제의 성공적인 출시와 지속적인 개발을 통한 새로운 먹거리 창출이 목표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낚시에 관심이 많아서 1m 광어를 잡고 싶습니다.

Q. 어떤 선임, 동료가 되고 싶은가요?

후배들이 어려워하지 않고 언제든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편안한 선임이 되고 싶습니다. 서로에게 더 좋은 방향으로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싶습니다.

김혜정 사원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선행연구본부 선행개발팀 신입사원 김혜정입니다.

Q. 현재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가요?

저는 박성우 대리님과 Glass 동도금 개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에서 Glass는 꿈의 소재로 불리는데 기존 유리 기판에서 글라스로 변경하면 많은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유리만의 특징인 낮은 열전도율과 유연한 강도, 얇은 기판을 더 넓게 만들 수 있는 장점을 꼽아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글라스의 에칭, 화학동, 전기동 공정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Q. 부서 배치 이후 생각했던 것과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제가 수습사원일 때 선행개발팀은 신생팀이고, 맨땅에 헤딩하는 것처럼 일을 할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정말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각오하고 들어왔지만, 아직 모르는 것 투성이라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하지만 최대한 논문과 문헌 자료를 바탕으로 관련 지식을 쌓고 있습니다. 또한 생각나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바로 실험에 적용해 볼 수 있어서 아직까진 일이 어렵지만 재미있게도 느껴집니다.

Q. 앞으로 선행개발팀에서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글라스 동도금 전 프로세스에 관한 개발을 성공시키고 싶습니다. 에칭부터 시작해서 전기동까지 글라스 조성에 맞춰 적용되는 약품을 양산까지 성공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아직은 적용되기 어려운 현실이지만 글라스 전용 약품을 개발하여 글라스 기판 대체를 실현하는데 저희도 기여하고 싶습니다.

팀장 | 성희철 과장

팀원 | 박성우 대리, 구자원 주임, 김대균 주임
우상우 주임, 박민지 주임, 공혁진 주임
김찬휘 주임, 김태규 사원, 이준석 사원
김관현 사원, 김성범 사원, 최수진 사원
김혜정 사원

선행개발팀

Q. 어떤 팀원(팔로워)이 되고 싶은가요?

무슨 일을 시키든 믿고 맡길 수 있는 팀원이 되고 싶습니다. 현재는 선배님들 밑에서 실험방법이나 실험하고 나온 결과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 지, 그 외에도 실험장비 다루는 방법을 익히고 있습니다. 좀 더 능숙해져서 선배님들이 일을 지시하시지 않아도 스스로 일을 완벽하게 수행하고 나중엔 저도 실험계획을 제안할 수 있는 수준이 되고 싶습니다.





신규 입사자 INTERVIEW

영업관리 : 엄정민 사원 | 연구기획 : 박연수 사원 | 제품개발 : 남민정 사원

연구기획 박연수 사원

Q.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구기획파트 신입사원 박연수입니다. 현재는 전체적인 연구소 프로세스 정립과 R&D 체계 구축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

Q. 남민정 사원과 대학 동기라고 들었어요! 대학 동기가 있어서 의지가 많이 될 거 같아요.
사실 저희가 함께 지원했는지는 몰랐는데, 지원 후에 이야기하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끼리 경쟁하게 되어서 처음에는 조금 걱정도 됐지만, 다행히 면접 때 저희를 좋게 봐주셔서 함께 입사할 수 있었습니다. 입사 초에는 저희가 친하다 보니 업무에 있어서 약간 우려되는 부분이 있긴 했지만, 저희가 워낙 오래 알고 지낸 만큼 서로를 잘 알아서 오히려 좋게 작용한 부분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둘 다 타지에서 첫 직장 생활인데 의지도 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같이 이겨내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남민정 사원은 고마운 친구이자, 좋은 직장 동료입니다.

Q. 짧은 기간이지만, 오알켄에 근무하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나요?
아무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저번 사보에 펄스 도금 글을 게시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납니다. 그때 당시 제가 연구소에 배부할 펄스 도금 자료 정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차장님께서 펄스 도금 관련해서 사보에 글을 실어 보는 것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신입사원이기도 했고, 펄스 도금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아는 것은 아니어서 조금 부담되기도 했는데, 팀장님께서 전사 직원분들이 알기 쉽게만 작성하면 된다고 격려해 주셔서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 뜻깊은 에피소드였습니다.

Q. 오알켄과 부서에 적응하면서 가장 고마웠던 분은 누구인가요?
수습사원 기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저희 팀 팀장님, 조소연 차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팀이 세 명으로 구성된 소수정에 부서이기도 하고, 제가 신입사원이라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차장님께서 늘 업무도 자세히 알려주시고, 방향성을 잘 잡아 주셔서 업무에 적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일을 효율도 더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배우면서 연구기획팀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Q. 나는 부서에서 어떤 사람인 것 같나요?
저는 부서에서 ★막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가장 늦게 입사한 만큼 아직 미숙한 부분도 많아서 조동현 상무님, 조소연 팀장님, 그리고 팀원인 김시연 사원이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우선 세 분께 감사하다는 말 먼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아직은 팀의 막내인 만큼, 실수를 하기도 하고 업무 진행 속도도 느리지만 제가 맡은 일은 완벽하게 해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것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물어보고 빨리 습득해서 팀의 일 잘하는 막내로, 또 후배분들이 입사하게 되면 일 잘하는 선배로 꾸준히 성장해 나가고 싶습니다.

Q. 앞으로 오알켄에서 도전해 보고 싶은 업무나 최종적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는 무엇인가요?
가끔 동기들이나 선배님들께서 연구기획은 어떤 일을 하는 부서인지 물어 보고는 하셨습니다. 저도 아직 신입사원으로서 많은 일을 경험해 본 것은 아니지만, 현재까지 제가 느낀 것은 연구기획이라는 부서는 넓은 분야를 깊게 알아야 하는 부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분야와는 다른 분야인 만큼, 앞으로 더 열심히 배우고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을 바탕으로, 단기적으로는 우선 전체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익히고 팀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support 하면서 기본적인 업무 스킬을 높이는 데 힘쓰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한 PJT를 담당할 수 있을 만큼 역량을 키워서 오알켄, 그리고 연구소가 성장하는 데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제품개발 남민정 사원

Q.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품개발팀 남민정 사원입니다. 저는 화학동도금 파트에서 약품들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Q. 박연수 사원과 대학 동기라고 들었어요! 대학 동기가 있어서 의지가 많이 될 거 같아요.
원래 낯도 많이 가리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편인데 같이 입사한 덕분에 첫 직장생활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줄일 수 있었습니다. 같은 기숙사를 쓰다 보니 가족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중이구요. 이렇게 까지 붙어있던 적은 없어서 처음에는 걱정이 되기도 했는데, 오랜 기간 알아 온 만큼 대화를 많이 하면서 의지하고 있습니다. 서로 모르는 것을 물어보면서 부족한 점을 메꾸기도 하고, 시시콜콜한 이야기도 하면서요!

Q. 짧은 기간이지만, 오알켄에 근무하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나요?
신입사원 발표를 준비하던 당시가 떠올랐습니다. 사실 몇 개월 지나지 않았는데, 체감으로는 굉장히 오래 지난 것 같기도 해요. 아무래도 임원분들께 처음으로 저를 소개하는 자리이기도 하고, 많은 분 앞에서 발표하러니 매우 긴장되어서 덜덜 떨었던 것이 기억에 납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발표했지만, 지금 다시 자료를 살펴보니 아쉬운 점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하하하...) 그 외에도 오프닝데이나 연구소 워크샵 같은 즐거웠던 경험들도 참 많이 기억에 납니다!

Q. 오알켄과 부서에 적응하면서 가장 고마웠던 분은 누구인가요?
제품개발팀 모든 분께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서 감사하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신상희 대리님께 수습 기간 교육 때부터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대리님께 가장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 업무에 미숙하다 보니 모르는 점들이 많아요. 그럴 때마다 대리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데 관련 이론이나 기기 사용법 등을 자세하게 알려 주셔서 차근차근 배워가고 있습니다. 업무 외의 부분에서도 버팀목 프로그램 멘토로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조언도 해 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Q. 앞으로 오알켄에서 도전해 보고 싶은 업무나 최종적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는 무엇인가요?
우선 1인분을 해내는 사람이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지만, 제 몫을 해내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앞으로 한 프로젝트를 제대로 담당해서 고객사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해당 이슈를 해결하여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싶습니다.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많이 배워서 Global No.1 오알켄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고 싶습니다.

Q. 나는 부서에서 어떤 사람인 것 같나요?
팀 안에서도 파트가 나뉘다 보니 같은 화학동 파트인 정아영 사원과 함께 다니는 일이 많은데요, 둘 다 조잘조잘 말이 많다 보니 '분위기 메이커' 같은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른 분들의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지만요! "괜찮아 괜찮아!"를 외치면서 일하는 모습이 조금 불안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조금씩 배워가면서 지난주에는 못하던 것을 이번 주에는 해내기도 하고, 모르는 점들은 주변 선배분들께 질문하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팀 내에서 꼭 필요한 인원이 되고 싶어요!

Inside ORChemer
신규 입사자 인터뷰

영업관리 엄정인 사원

Q.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영업 관리 파트에서 매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엄정인 사원입니다.

Q. 오알켄에 입사하고 싶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전 직장에서 심각한 주차난을 겪었어요. 주차를 위해 한 시간 반 전 출근하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심지어 교대 근무하는 사람들이 나가길 기다렸던 적도 있어요. 그런데 오알켄엔 주차장이 있더라고요. 주차 시설을 보고 오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알켄엔 직원들을 위한 시설이 잘되어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한 시간 반씩 일찍 나오지 않아도 돼서 좋아요. 만족스럽습니다.

Q. 수시 채용으로 입사하셨는데, 수시 채용자만의 아쉬움도 있을 거 같아요.

사실 수시 채용자로서 아쉬운 것까진 없는 것 같아요. 수시 채용자와 공채는 동기의 유무가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은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극 I(내향형)로서 단체로 무언가 활동들을 하는 게 좀 힘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Q. 짧은 기간이지만, 오알켄에 근무하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나요?

제가 오알켄에 입사한 후 ERP가 바뀌었어요. ERP는 산업군마다 개발되는 방향이 달라서 회사마다 시스템이 다른데, 호텔 쪽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다 보니 여기서 쓰는 프로그램이 생소해서 헛갈리더라고요. 그래도 나름 어느 정도 익혔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다른 프로그램으로 바뀌어서 다시 익혀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당시에는 단기간에 빨리 숙지해야 한다는 점이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지금은 잘 극복해 낸 것 같아 뿌듯합니다.

Q. 오알켄과 부서에 적응하면서 가장 고마웠던 분은 누구인가요?

당연하게 팀원분들이 가장 감사하지만, 업무를 하면서 생산 관리나 출하/납품 관련해서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내수 특성상 익일 입고나 긴급 입고 같이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는데, 잘 도와주시고 또 협력해 주셔서 원활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조 본부 분들께 감사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Q. 앞으로 오알켄에서 도전해 보고 싶은 업무나 최종적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는 무엇인가요?

저는 일단 제가 지금 하는 일을 잘 완벽하게 마스터하는 게 목표예요. 저는 이 목표를 달성한 후에 그다음 단계를 꿈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다음 목표는 한 2~3년 뒤에 다시 물어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D



오알켄인의 스트레스 해소법

저는 조금 단순한데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스트레스가 풀리고 행복해집니다.

밥심!!!

-전사기획팀 민선경 과장-

곱소 (곱창소주)

기분이 저기압 일 땐 고기압으로! 곱창구이 먹고 후식으로 곱창전골에 밥 볶아 먹으면 이것이 진정한 힐링입니다.

-구미 환경안전 김학범 사원-

아직 저도 못 찾았습니다.

-전산정보팀 박정수 차장-

운동, 음주, 휴식

건강을 위해 헬스장 가서 근육을 만들고, 유산소 운동 후 충분한 휴식을 취한 후에... 술을 마십니다...

-혁신 본부 김주완 과장-

러닝

정신없이 달리고 나면 잡다한 생각이 모두 사라지고,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국내 영업팀 김민기 주임-

볼링

점점 실력이 높아가는 게 재밌고, 스트라이크 칠 때마다 스트레스가 풀립니다~

-기술혁신팀 정준 사원-

배드민턴

동호회 참석하면서 땀 내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해소합니다!

-연구기획 김시연 사원-

동기들과 오카페에서 소소한 수다 떨기!

-선행개발팀 최수진 사원-

요즘 직장인이 임금보다 포기할 수 없는 것?!?!

즐거로운 직장생활

요즘 직장인이 임금보다 포기할 수 없는 것?!?!

최근 근로자들이 임금 못지않게 근무 여건(Job amenity)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무 여건은 유연한 근무 조건, 업무 자율성, 발전 가능성 등 '비임금 만족감'에 해당하는 조건들을 말하는데요, 한국은행(한은) 보고서에 따르면 근무 여건을 주요 고려 사항으로 여기는 취업자의 비중이 2019년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2023년 기준 31.5%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임금 수준을 주요 고려 사항으로 여기는 취업자의 비중(2023년도 기준, 26.8%)을 넘어선 수준으로 더 좋은 근무 여건을 위해서 임금의 일정 부분을 포기할 수 있는 근로자가 다수 존재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근무 여건이 높은 직종

한은 고용분석팀은 근무 여건 지수를 유연근무, 재택근무, 육체적 강도, 업무 강도, 업무 자율성, 업무 독립성, 발전 가능성, 직업 보람 총 8가지로 설정해 산출했습니다. 그 결과 법률 및 감사 사무 종사자, 상품 기획/홍보 및 조사 전문가, 기타 전문 서비스 관리자, 법률 전문가, 디자이너 등이 근무 여건 지수의 상위권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직종들은 육체적 활동이 적고 유연근무, 재택근무 활용도가 높으며,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개인의 업무 역량을 발전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근무 여건 지수가 높은 직종의 종사자

한은 분석에 따르면 성별 기준으로는 여성이, 연령 기준으로는 저연령이 근무 여건 지수가 높은 직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20~40대 근로자의 근무 여건 지수는 높은 반면, 50대 이상에서는 근무 여건 지수가 크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외에도 고학력, 고소득 임금의 근로자일수록 근무 여건 지수가 높은 직종에 종사하는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이 중 여성과 고학력 근로자는 근무 여건에 대한 선호도와 만족도가 높은 계층이며, 일자리 선택이 대체로 부합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반면 고령층에서는 근무 여건에 대한 선호도와 만족도가 높음에도 타 계층과의 경쟁에서 밀려 근무 여건 지수가 낮은 직종에 종사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경제활동인구의 변화로 근무 여건의 중요도는 높아질 전망인데요, 여성과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위한 근무 여건 개선도 고려해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출처: 근무 여건 선호와 노동시장 변화_한국은행 보고서_20240423)

2024 1분기 핵심 인재상 수상자

+ 대내상 (업무 개선, 비용 절감) 재무회계팀 임수정 대리님

글로벌 통합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수익성 분석, 자산 관리, 자금 관리, 재무 회계 등 관련 시스템의 프로세스 개선 및 시스템 안정화에 기여



+ 핵심가치(협업) 품질팀 조선영 부장님

협업 프로젝트 진행 시 팀장으로서 업무적인 인사이트 제시 및 협력적 관계 형성으로 원활한 프로젝트 진행에 기여



+ 핵심가치(협업) 전산정보팀 황소영 사원님

타 부서 업무 고충에 대한 업무 지원을 통해 프로세스 개선 및 업무 효율화 제공



2024 1Q
타운홀 미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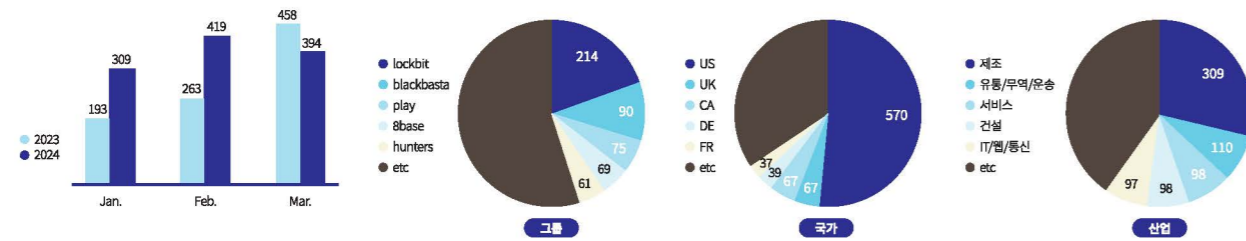
핵심 인재상
수상자

● 랜섬웨어, 보이지 않는 적과의 대결

(전산정보팀 고태윤 대리)

part1. 2024년 1분기 랜섬웨어 활동 통계

2024년 1분기의 랜섬웨어 피해 사례 수는 지난 분기 914건에 비해 약 23%가 증가한 1,122건으로 나타났다. 유명 랜섬웨어 공격그룹 BlackCat(Alphv)의 활동 중단과 LockBit의 인프라 압수 등의 소식이 연달아 전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랜섬웨어로 인한 피해는 지속되고 있다. 랜섬웨어 출연 후 가장 큰 랜섬웨어 그룹인 LockBit은 국제공조를 통한 Cronos 작전으로 인해 주요 인프라가 압수되었지만, 새로운 인프라를 통해 활동을 재개하며 이전처럼 활동을 계속 진행 중이다. 최근엔 ConnectWise의 ScreenConnect2 취약점 CVE-2024-17093 를 악용하여 취약한 서버를 공격한 정황이 확인되어 한차례 이슈가 되기도 했다.



part2. 랜섬웨어 트렌드

기존에는 랜섬웨어 그룹들이 공격에 맞춤형 도구를 제작해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최근 Cactus 랜섬웨어 그룹이 글로벌 에너지 기업인 슈나이더 일렉트릭에 대한 공격 수행 시 AnyDesk, Splashtop, SuperOps 등의 도구를 피해자(피해 기업)의 시스템에 배포하여 초기 침투 및 내부 전파에 악용한 정황이 발견되기도 하였으며, LockBit 또한 원격 접속 솔루션 (ScreenConnect, TeamViewer 등)을 설치하고 기존 피해자의 시스템에 존재하는 합법적인 프로그램을 악용하여 랜섬웨어 공격을 진행했다. 랜섬웨어 그룹들은 RMM 및 시스템에 설치되어 있는 도구를 활용하여 초기 침투, 정보 유출, 내부 전파 등 랜섬웨어 탐지를 우회하기 위해 다양한 공격 및 전략들을 펼치고 있다.

part3. 공격 타깃의 다변화

많은 수의 RaaS 그룹은 운영 측에서 자체 규정을 수립하여 이를 준수하지 않는 계열사에 대해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그룹을 운영해 나가고 있다. 물론 규정은 그룹별로 상이하나, 한 가지 공통된 규칙을 꼽자면 의료, 교육, 비영리 단체를 포함한 주요 기반 시설에 대한 공격을 금지하는 조항이다. 이러한 조치에 대해 공격을 수행하게 되면 상당이 큰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게 되며, 타 랜섬웨어 그룹보다 수사 기관의 표적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대다수의 랜섬웨어 그룹은 해당 기관에 대한 공격에 있어서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랜섬웨어로 인한 피해자들의 몸값 지불 비율이 줄어들면서 랜섬웨어 그룹들은 수익 감소의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주요 기반 시설 특성상 랜섬웨어 공격으로 인해 시스템이 마비되었을 경우 대중의 불편함과 막심한 손해가 수반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노린 공격자들은 점차 주요 기반 시설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Cactus 랜섬웨어 그룹은 미국에 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던 헬스케어 조직인 Petersen Health Care를 공격하여 파산에 이르게 했다. BlackCat(Alphv) 역시 UnitedHealth의 Change Healthcare로부터 약 350BTC(한화 약 310억 원)를 갈취하였고, 한 공격자는 Phobos 랜섬웨어 변종인 BackMyData 랜섬웨어 공격을 통해 루마니아 전역의 병원 100여 곳에 대해 운영을 중단시켰다.

part4. 랜섬웨어 그룹은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다



2024년 1분기에 11개의 신규 랜섬웨어 그룹이 발견되었다. 랜섬웨어가 과거에는 특정 그룹이 랜섬웨어를 개발하고 퍼트리는 형태였다면, 최근 2~3 분기 사이에는 특정 그룹이 하위 계열사를 모집하여 해당 계열사와 그룹이 동시에 공격하는 이중 공격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해당 방식으로 인해 실령 추적이 되어 잡히더라도 꼬리 자르기로 점조직화되어 수사망을 빠져나가고 있다.

part5. 고도화되고, 점조직화 되는 랜섬웨어 그룹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오알켄은 6월부터 보안 프로그램을 V3에서 알약으로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기존에 사용하던 V3와 가장 큰 차이점은 랜섬웨어 감염 시 어느 취약점(경로)을 이용하여 들어왔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랜섬웨어를 퍼트렸는지 추적이 가능한 기능이 탑재되어 랜섬웨어 발생 시 빠른 대응을 하기 위하여 보안 프로그램을 교체하게 되었다.

part6. 랜섬웨어의 감염을 현실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과거의 랜섬웨어 혹은 과거의 랜섬웨어에서 변조를 통해 이루어지는 랜섬웨어의 경우에는 전 세계 랜섬웨어 대응연합(NO MORE RANSOM)에서 세계 국가의 법 기관, 세계 유명 공공/민간 기관들이 합심하여 랜섬웨어 해제 키를 제작하여 유포 및 대응하여 어느 정도 해결은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랜섬웨어 해제 키를 만드는 시간보다 신규 혹은 변조 랜섬웨어를 만들고 웹상에 배포하는 것이 더 빠르기 때문에 냉정하게 랜섬웨어의 감염을 현실적으로 막을 수 없다. 개인이 직접적으로 랜섬웨어에 대응하기 어렵지만 아래와 같은 사항을 권고한다.

1.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주기적으로 한다.
2. 불법 사이트를 방문하지 않는다.
3. 불법 다운로드 한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는다.
4. 의심되는 이메일의 첨부파일(첨부 링크)를 열지 않는다.
5. 의심되는 문자(SNS)의 링크를 열지 않는다.

Cronos작전 : LockBit의 범피생태계를 파괴하기 위한 사이버 교란 작전
ScreenConnect : 인터넷이나 다른 네트워크를 통해 컴퓨터를 원격으로 제어하는 소프트웨어
CVE-2024-1709 : ScreenConnect 23.9.7 버전 이하에서 발생하는 인증 우회 취약점
AnyDesk, Splashtop, SuperOps : 원격 데스크톱 및 IT 관리를 위한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
RMM : 원격 위치에서 컴퓨터 및 네트워크 장비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RaaS (Ransomware-as-a-Service) : 서비스형 랜섬웨어의 약어로, 랜섬웨어 그룹들이 계열사나 공격자에게 대가를 받고 랜섬웨어를 제공해 주는 형태

CA 2기 독서 토론회

CA 2기 멤버

구자원 주임, 김민기 주임,
박종기 주임, 변광호 사원,
전웅빈 사원, 최수진 사원,
김학범 사원, 정아영 사원,
안소희 사원

오알켄을 '일하고 싶은 일터'로 만들기 위한 CA 2기 멤버들의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오알켄인들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변화해야 할 '일 문화'는 무엇일까요? 여기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CA 2기 멤버들이 모였습니다.

4월 CA 2기 멤버들은 '일하고 싶은 기업 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모 기업 피플팀 팀장의 저서 '일터의 설계자들'(저자 나하나)을 선정해 독서 토론을 진행했는데, 책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원 간의 어떤 이야기든 건강하게 나눌 수 있는 심리적 안정감과 신뢰를 형성하기 위한 '잡담 문화', 오알켄 구성원으로서 공유해야 할 '오알켄다움'의 필요성, 상대에 대한 존중과 일에 대한 열정/목표가 바탕이 된 '태도' 등에 대한 각자의 의견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오알켄 안에서 여기저기 잡담을 나누는 임직원들의 모습이 많이 포착될 것 같은데요! '오알켄의 숨은 설계자들'인 CA 2기가 만들어갈 오알켄의 '소통 문화', '오알켄다움'은 어떤 모습일지 기대가 됩니다. CA 2기 멤버들은 해당 책을 주제로 2차 리더 독서토론회도 준비하고 있다고 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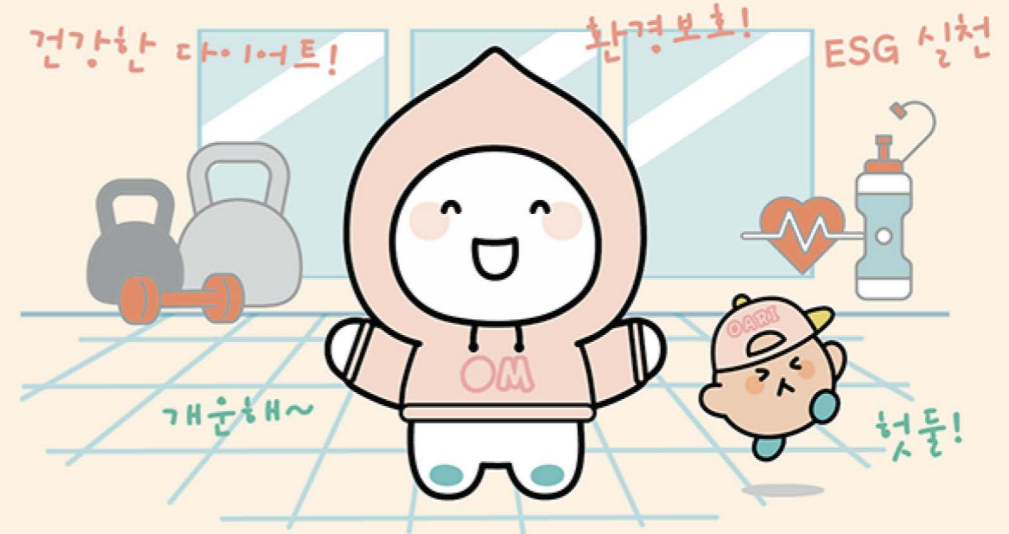
'출근하고 싶은 회사'로 나아가기 위한 CA 2기의 활동들을 응원합니다!



사진: 김학범 사원 제공

CA 2기 독서토론회

지구의 건강을 위해 오몽이와 함께 에너지 다이어트



2023년 사용 전력 요금

4억 6천만원

10% 더 줄여봅시다!

1. 점심시간에는 **조명 스위치 OFF**
2. 사무실 적정온도 유지 (여름 24~26°C, 겨울 20~22°C)
3. 퇴근 직전 **멀티탭 전원 OFF**

O! Campaign 에너지 다이어트 캠페인

우리 함께 오알케임을 지켜주세요

쉿!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보안준수

신뢰

영업비밀

피.땀.눈물

오몽쥐



ORCHEM

보안유출 사례

회사정보 유출 (소문의 시작, 파장, 타격)



동종업계 다니는 지인과의 메시지

A: 지금 우리 회사 난리났어. 이러쿵저러쿵

B: 진짜야?! 대박이다. 사진 찍어서 보내봐~

(같은직장 상사에게 공유) 차장님! A회사에서..

고객사와의 통화중

제품 레시피 유출

A: 제품 승인 문제로 성분을 알아야 하는데

혹시 제로콜라에 00첨가제가 들어가나요?

B: 어? 어떻게 아셨어요? (늑시에 낚임)

A: (경쟁사와의 미팅) B사는 00첨가제를 사용한다고요



기술 자료 유출

퇴사 직전 자료 전송



A: (다음주부터 경쟁사 출근)

내가 개발한 제품이니깐 관련 자료

가지고 나가서 사용해야지

원가, 단가, 마진율 유출

고객 명단 유출

생산방법 유출

사업보고 자료 유출

0! Campaign

보안 유출
사례 인지
캠페인

O! Language

물놀이의 계절, 여름이 돌아왔습니다! 여름철 물놀이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수영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현 몇 가지를 배워봅시다.

수영장

游泳池 yóuyǒngchí
Hồ bơi

수영복

游泳衣 yóuyǒngyī
Bộ áo tắm

수영모

泳帽 yǒngmào
mũ bơi

구명조끼

救生衣 jiùshēngyī
áo phao

안전요원

安全要員 ānquánrényuán
Nhân viên cứu hộ

선글라스

墨镜 mòjìng
Kính râm

선블록

防晒霜 fángshàiishuāng
Kem chống nắng

나는 수영을 좋아합니다.

我喜欢游泳。
Tôi thích bơi lội.

수영장이 어디에 있나요?

游泳池在哪里?
Hồ bơi ở đâu vậy?

물이 차가운가요?

水凉吗?
Nước có lạnh không?

저희 여기서 수영해도 되나요?

我们能在这里游泳吗?
Chúng tôi có thể bơi ở đây không?

수영을 가르쳐 주실래요?

你能教我游泳吗?
Anh dạy tôi bơi được không?

안전요원이 어디에 있나요?

安全员在哪里?
Nhân viên an toàn ở đâu?

수영장에 음식과 음료 반입이 불가 합니다.

游泳池里不准吃或喝东西。
Không được mang đồ uống và thức ăn vào bể bơi.

수영장 안에서는 수영모를 꼭 써야 합니다.

游泳池里一定要戴泳帽
Các bạn nhất định phải đội nón bơi ở hồ bơi nha

수영장에 들어갈 때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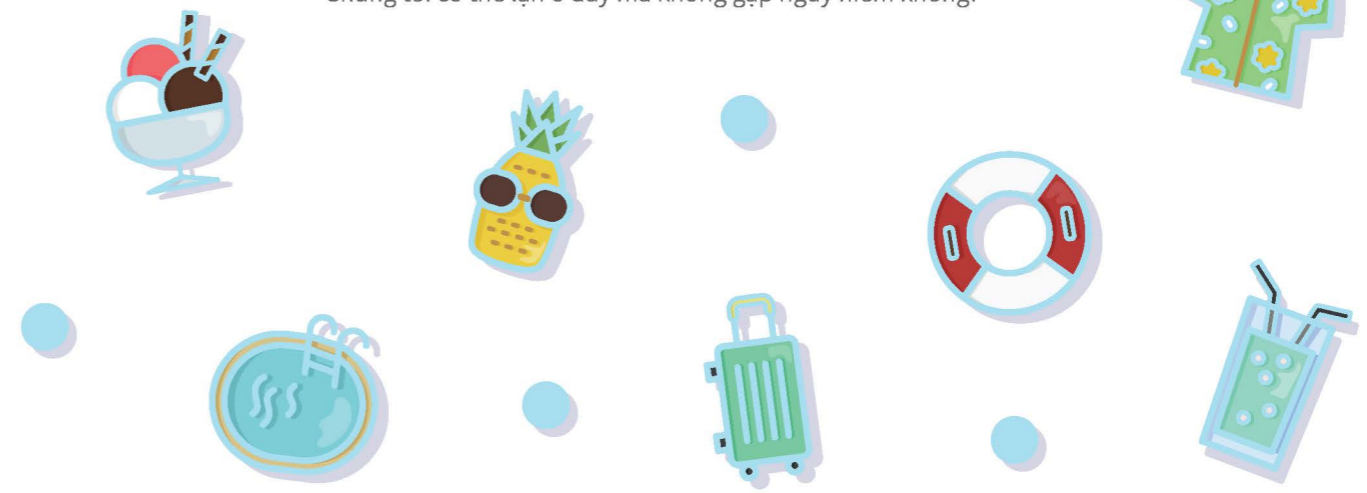
进入游泳池时一定要穿救生衣
Nhất định phải mặc áo phao ở hồ bơi.

이따가 반납하겠습니다.

一会儿还给您
Lát nữa tôi sẽ trả lại.

여기서 다이빙해도 위험하지 않나요?

我们在这里潜水安全吗?
Chúng tôi có thể lặn ở đây mà không gặp nguy hiểm không?



O! Language
중국어,
베트남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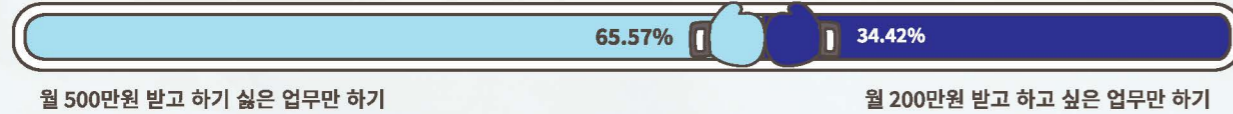
ORCHEM 직장인 밸런스 게임

(사내 기자단 최다정 사원)
설문 참여 인원 : 61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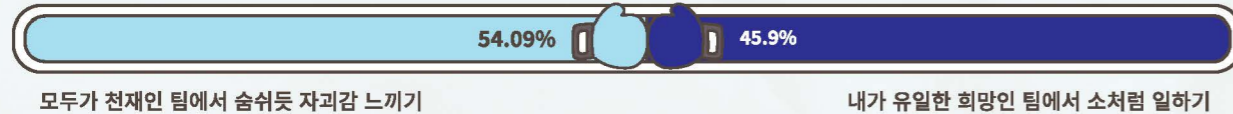
● 내가 선호하는 근무 조건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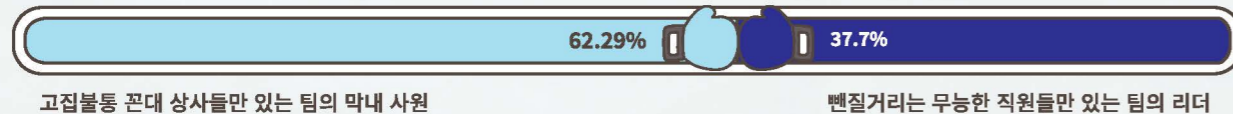
● 내가 말고 싶은 업무는?



● 내가 일하고 싶은 팀은?



● 내가 말고 싶은 포지션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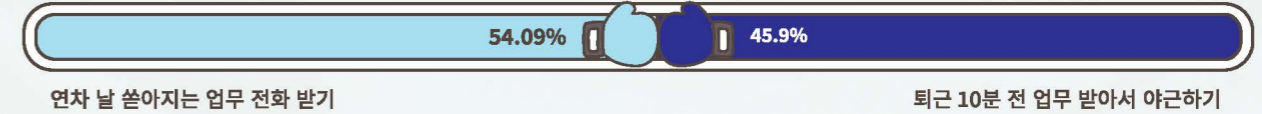
● 내가 선호하는 직장 동료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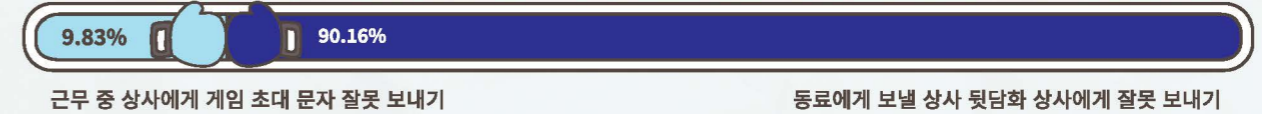
● 내가 선호하는 사수는?



● 직장 생활에서 더 최악인 상황은?



● 직장 생활에서 더 최악인 실수는?



● 직장 생활에서 더 최악인 사수는?



● 더 피하고 싶은 상사는?



구미 Running 동호회

글, 사진 : 구미 환경안전 김학범 사원, 국내 영업팀 김민기 주임

(사내 기자단 김학범 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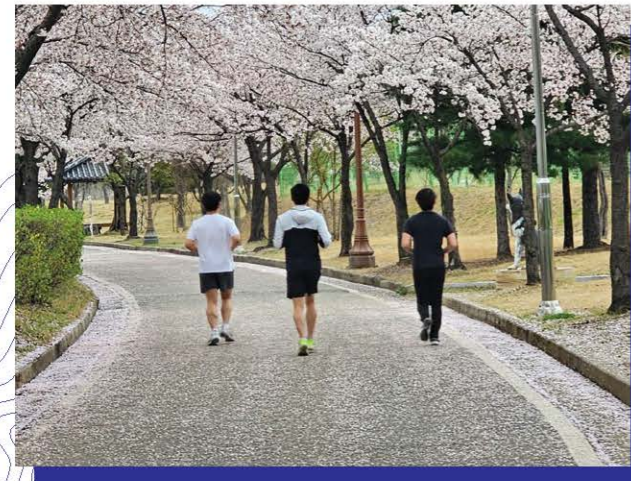
회장 : 김민기 주임
 회원 : 김주석 차장, 김성진 과장, 박상석 대리, 이희동 선임,
 김재민 주임, 김학범 사원

평소 러닝을 좋아하시는 김성진 과장님을 따라 가끔 동락공원에서 러닝을 했었는데 오랜만에 숨이 찬 운동을 하니 잡다한 생각이 사라지고 상쾌한 기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기분을 다른 분들과 함께 공유하며 회사 밖에서 조금 더 친해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보고자 동호회를 만들게 되었어요. 처음 동호회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한 건 작년 말이었는데요, 그때는 날씨가 추워 다들 러닝에 대한 의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러닝에 대한 관심이 늘고 날씨가 풀리다 보니 하나둘 러닝을 함께 하고 싶다는 분들이 생겼고, 올해 4월부터 러닝 동호회를 만들어 다른 분들과 함께 러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활동은 매달 동호회 날에 맞춰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러닝을 더 하고 싶으신 분들을 모아 매주 목요일마다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목요일 외에도 뛰고 싶은 인원이 많으면 주 2회까지도 진행합니다. 저희는 주로 회사 주변 동락공원을 4~5km 정도 달리고 있으며, 동호회원 분들의 체력이 좋아짐에 따라 달리는 거리를 점점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O! Health
 구미 러닝 동호회



동호회 날에는 각자 페이스에 상관없이 다 함께 러닝을 하고 있어요. 이때 사적인 담소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모두가 완주를 목표로 하기에 느린 사람의 페이스를 최대한 맞추는 편입니다. 처음엔 다들 의욕이 넘치다가 3km를 통과한 시점부터 급격히 말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김성진 과장님께서 잘 뛰셔서 선두로 주로 뛰시고, 그날 동호회 컨디션에 따라 페이스를 조절하십니다. 회차를 거듭할수록 동호회 분들 러닝 장비들이 많이 생겨나서 구경하는 재미도 있습니다. (선글라스, 힙색, 새 러닝화 등등.... 게임 캐릭터처럼 진화하시는 것 같아요 :D)

누구 하나 빠지는 분 없이 동호회 활동에 적극적이고, 동호회 날 외에도 러닝을 할 만큼 러닝에 진심인 분들이 많습니다. 산책로도 같이 있다 보니 귀여운 강아지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최고 장점임!) 러닝 코스가 낙동강을 끼고 있는데, 노을에 비친 강을 보며 뒀 때의 기분은 지금 인터뷰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마니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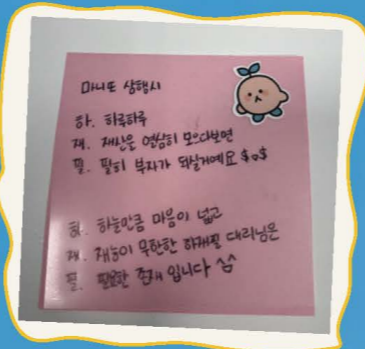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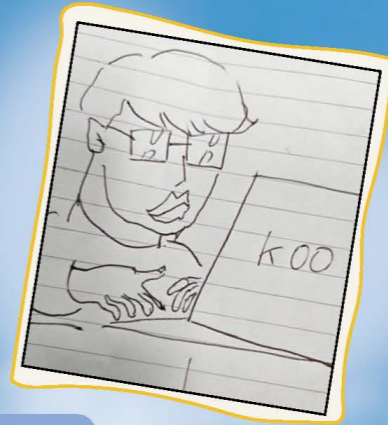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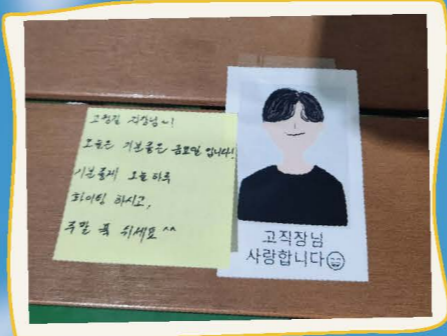
꼭꼭!
출근해 보니 책상 위에 깜짝선물이...!!!
하루를 활기차게 만들어 줄 소중한 행복들을 만나보셨나요?

5월 20일 ~ 6월 21일 약 한 달간 오알렘에서는 신규 입사자의 부서 적응과
본부별 화목한 분위기 형성을 위한 마니또 게임이 진행되었습니다.


마니또 게임은 비밀 친구가 되어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상대에게 작은 도움을
배우는 게임인데요, 본부별 랜덤 뽑기를 시작으로 총 9가지의 미션이 진행되었습니다.

소소한 선물, 간식 챙겨주기부터 칭찬 게시판에 몰래 쪽지 남기기까지!
그동안 전하지 못했던 고마운 마음들이 비밀스럽게 오고 갔던 시간이었는데,
마니또 게임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한 좋은 핑계가 되어줬던 것 같습니다.
덤으로 정체를 들릴 수도 있다는 긴장감과 서로의 마니또를 예측해 보는 즐거움도
느낄 수 있었구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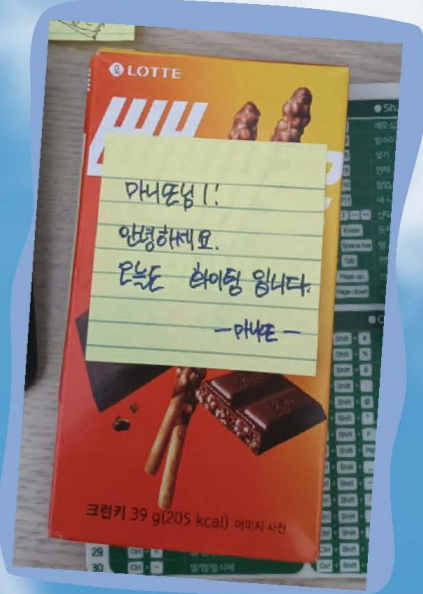
투박하지만 진정성 있는 마음들이 모인 오알렘의 훈훈한 모습들을 사진으로 확인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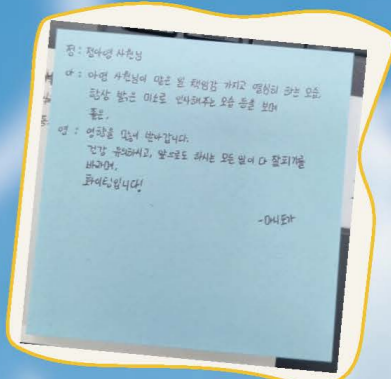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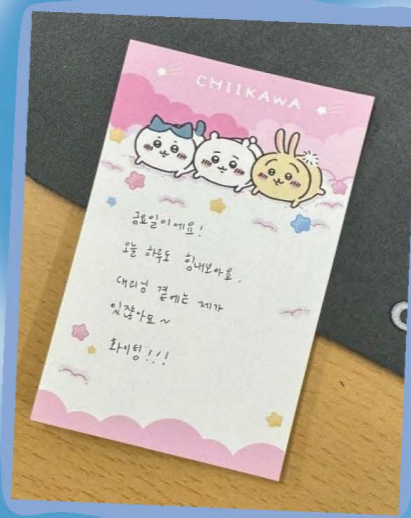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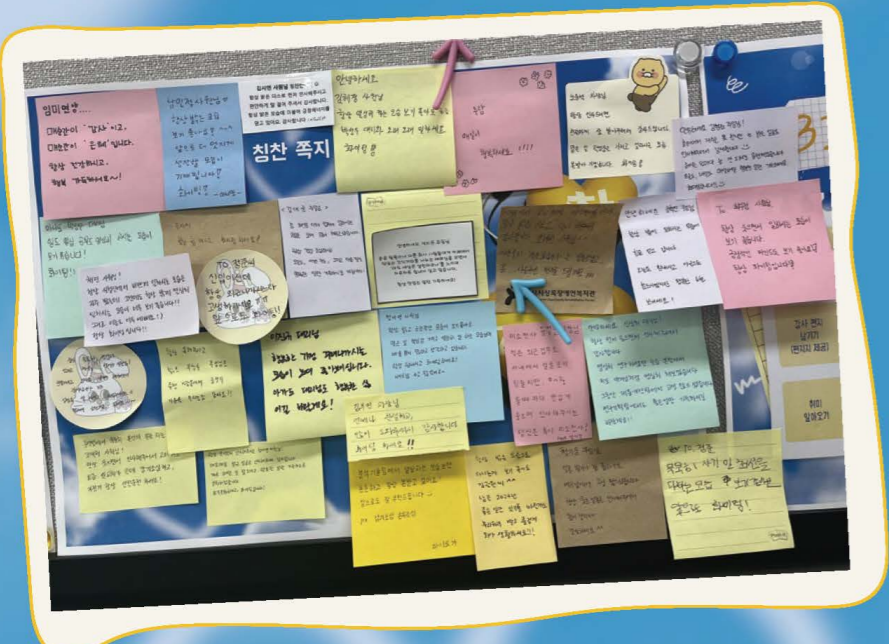
삼행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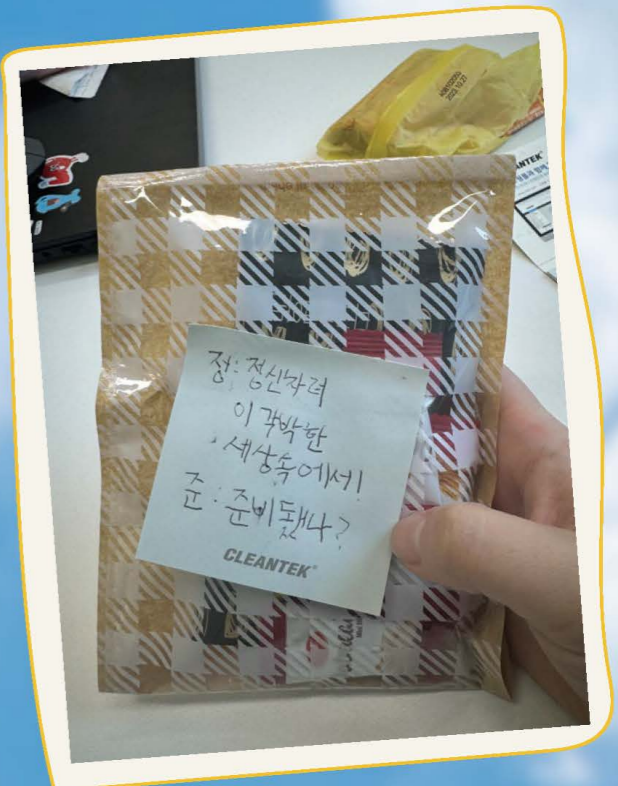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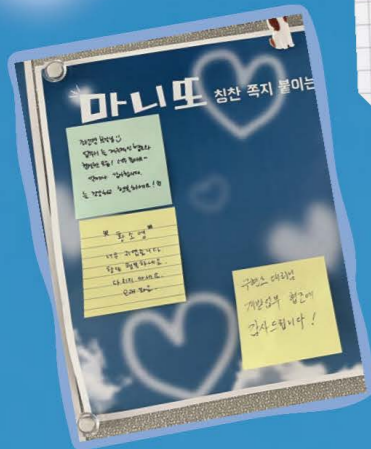
김 : 김...긴장감 넘치는 금요일 저녁...
예 : 예전부터 생각했었는데
술 : 술직히 밤들이 너무 보고싶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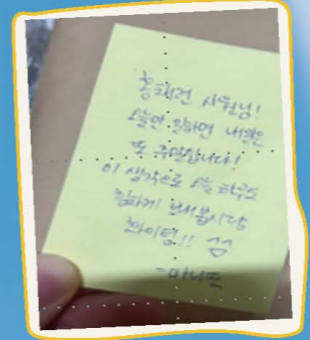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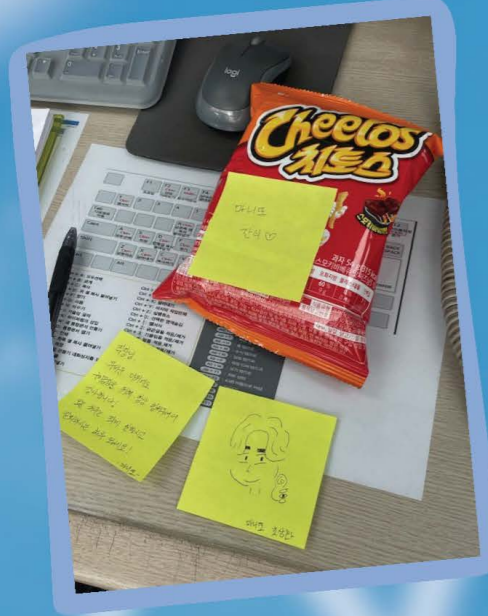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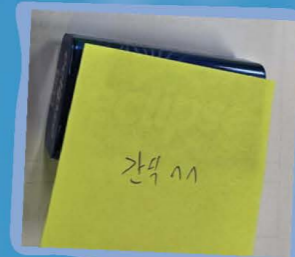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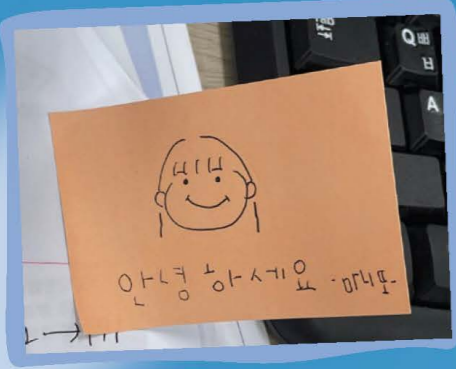
! Culture
사내 이벤트
'마니또'



마니또



! Culture
사내 이벤트
'마니또'



나의 끈대력은?!?
끈대 자가 진단 TEST **START**

자신에게 해당하는 문항에 체크해 보세요 ✓

- 초면에 나이부터 확인한다.
- 나보다 어리면 반말하는 게 당연하다.
- 나보다 늦게 출근하는 후배가 거슬린다.
- 자유롭게 말하라고는 하지만 내가 하는 말이 답이다.
- 고기 굽기나 식사 자리 세팅은 후배가 하는 일이다.
- 내가 하는 말, 조언은 다 잘되라고 하는 소리다.
- 내 의견과 반대되는 의견은 불쾌하다.
- 개인적인 이유로 회식이나 단체 생활에 빠지는 후배를 이해할 수 없다.
- 요즘 후배들은 근성이 부족하고 불평, 불만이 많다.
- 잘나가던 시절의 내 모습을 알려주고 싶다.
- 연애사, 개인사에 대한 조언을 해주고 싶다.

끈대 Mode

ID

PASSWORD

LOGIN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

끈대력 측정중 ...

결과는?!?!?

- 0~3개 어른
- 4~6개 잠재적 끈대
- 7~9개 후배들 기피 대상
- 10개 이상 왕 끈대

신조어 QUIZ

신조어의 뜻 및 설명에 해당하는 신조어를 맞춰보세요!
 김정아 사원(junga9434@orchem.com)에게 정답 발송
 랜덤 추첨을 통해 선정된 분께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send

QUIZ

- 중적그마**
- 쓸쓸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지출하는 비용
- 뉴런공유**
- 스스로 찾아볼 수 있는데도 다른 사람에게 검색해 달라고 하는 사람
- 내또출**
- 일며들다**

PLAY LIST

Loding ...

MZ력 TEST ...

이 Test
 끈대
 자가 진단
 테스트

이 Quiz
 신조어 퀴즈



O₂Rchestra

2024 | Vol.13

www.orchem.com

ORCHEM[®]